

새내기 포교 대불련 열기 '후끈'

염주선물·차공양·홍보책 배포 등 묘안백출 운동권 탈피 신앙강화...교계지원 아쉬워

새하기를 앞두고 전국 각 대학 불교학생회가 신입생 포교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각 대학 불교학생회의 신입생 포교는 이미 본교사·수학능력평가일, 합격발표때부터 펼쳐왔다. 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상인, 이하 대불련)전국25개지부 2백4개 대학 불교학생회 대부분은 그간 '민중불교'라는 기치아래 운동권 이미지를 보여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불교학생회는 '신앙생활의 내면화'에 주력하겠다는 자정적 분위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새법우를 맞으려는 의욕의 열기가 뜨겁다.

연세대 불교학생회의 경우 본교사를 치던 날 아침 예비 연대생인 수험생들에게 따스한 차보시를 하면서 연대대 불교학생회

의 존재를 알렸다. 이어 추위에 떨며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학부모들을 동이리 법당으로 안내하고 목탁을 치며 함께 합격을 기원해 학부모들에게 불교학생회의 건전함과 종교성을 알리는 특이한 활동을 펴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됐다.

또 입학생활이 적어낸 신상카드를 일일이 조사해 약 8백여명의 불자학생들을 찾아내고 각 가정으로 동이리 홍보책자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며 새법우를 맞을 개강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여자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보이고 있는 부산·경남지부와 대구·경북지부의 대학들은 새내기들에게 불교학생회 동아리를 알리는 팸플릿과 리플렛을 제작,

교내 곳곳에 배포하는 기본적인 홍보에서부터 대학입시일과 합격발표일에 맞춰 차보시, 단주보시를 하는 적극적인 활동도 전개했다. 이와함께 2월 중순부터 연등을 제작, 또다른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교내를 밝히고 있다.

이같은 신입생 포교는 그동안 새학기 동아리 회원모집 시기를 시작으로 펼쳐오던 소극적인 홍보활동에서 벗어나 일차원로 그시기를 앞당김과 동시에 활기를 띠어 새법우들에게 불교학생회의 위상을 바르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 불교

학생회는 이를 계기로 최대한 많은 법우를 확보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와함께 각 대학은 대불련의 지부와 홍보자료를 상호교류하고 서로의 새내기 포교 노하우를 교환하는 등 그동안 청년불교가 침체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있다.

전국 각 대학 불교학생회는 3월 개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신입생 포교에 나서는데 이어 4월 초파일, 가을 학기등 언제든지 새하기를 받아들일 창구를 열어 놓을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승가대 발전위 발족
중단인사 80여명 위촉

중앙승가대(학장 송산스님)가 캠퍼스 이전을 계기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2일 김포 이전배치도를 심의 확정함에 이어 정계, 제계, 중단인사 80여명으로 구성되는 '중앙승가대 발전위원회'를 이날 안으로 발족시킬 계획이다.

또한 승가대는 3월 10일 '사회문제연구소(소장 영담스님)'의 현판식을 갖는다.

남북합동법회 추진

16일 중단협정 서울시민 위한 기원법회 개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는 16일 중단협사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국제불교 교류 행사 등 신년사업안을 확정했다.

중단협은 30개종단 가운데 27개종단 대표가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남북통일과 관련해 남북합동법회와 남북불교지도자회의 및 교류를 금년중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한중일 불교교류(5월 22~23일), 제16차 한일불교문화 교류대회(10월말)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중단협은 정보증을 제정하고 자은종과 미륵선종의 가입신청을 받았다.

이어 중단협은 이날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각종단 총무원장과 서울시장, 서울시내 25개 구청장등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서울시민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전국 문화제 1백45곳 5·10월 소방훈련

내무부는 지난 14일 해인사, 경복궁, 범어사, 명동성당 등 중요 문화제 1백45곳에 대해 오는 5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문화제 관리부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고궁과 유명 사찰 등에 대해 일부 소방훈련이 실시된 적은 있으나 전국 규모로 시행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단협이 주최한 제12회 서울시민을 위한 기원법회에 송일주 조계종총무원장, 최병렬 서울시장, 박서봉 태고종 총무원장(오른쪽 부터) 등 3백여명이 참석, 서울시민의 화합을 기원했다.

국회의사당에 법당조성

정각회등 추진 30여평규모 5월 문열어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기관인 여의도 국회의사당내에 법당이 마련된다.

불자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회(회장 권익현)는 지난 9일 의원회관에서 법당조성을 위한 회의를 갖고 5월경 국회법당을 낙성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각회와 국회신도회 회장단은 최근 국회의사당 지하에 마련한 30여평의 공간에 법당을 조성키로 하고 추진안에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의사당 법당불사추진과 관련해 권익현 회장은 "국민대표기구인 국회의 상징성을 감안, 자체경비외에 각계의 지원을 받아 법당을 조성하겠다"며 "국회불자들의 신심고취

교계박물관 건립 구체화

조계종 총무원장은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각 본사에 박물관 건립규모 및 예산, 건립위치, 자체예산 확보여부 등을 기재한 박물관 건립계획서를 3월 20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총무원은 교구본사의 계획서 접수 후 박물관 건립을 구체적인 검토, 문화재관리국과 협의

와 기도정진하는 법당불사에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각회와 국회신도회는 신형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국회의원의 사찰을 순례하며 법회를 갖는 등 어렵게 신형공간을 펼쳐왔다. 이번엔 조성되는 국회법당은 동시에 1백50여 명이 동참하는 법회는 물론 선방등으로 이용할 전망이다.

불교교양대 대표자 회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지난 13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전국 불교교양대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16개대학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95년 포교원 사업계획과 포교사 고시에 관한 설명에 이어 간담회가 마련됐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교재, 교과과정, 수업일수, 학점 등의 통일, 각 대학 명칭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포교원측은 전국 각 불교교양대학의 운영현황 등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3월경에 교양대학 운영지침을 제작,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자들도 절수운동

각 종단 가뭄극복에 동참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절수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종단도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섰다.

태고종은 지난 여름과 같은 심각한 가뭄이 지속될 것이라 고 진단하고 불자들이 각 가정에서부터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대한 절약해 한다는 내용을 전종도들에게 홍보하고 나섰다.

천태종은 모두가 동체대비한 마음으로 심각한 가뭄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슬기롭게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절내에서부터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쓰라고 지시했다.

진각종은 "가뭄극복을 위한 절수운동"을 펼칠것을 전국 각 심인당에 홍보하고 전교도들이 실천하여 절수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한편 관음 법회 법문종 등의 종단들도 신도들에게 가뭄대책마련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는 등 슬기로운 가뭄극복을 위해

절수운동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고 나섰다.

심장병 무료검진
감로심장회 산청지역서

(사)감로심장회(회장 정일스님)가 지난 11일 경남 산청군 소재 산청국민학교에서 산청군교 전교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9차 심장병 무료 검진을 실시했다. 경상대병원 최준영 과장을 비롯 7명의 의료진에 의해 진행된 이날 검진을 받은 1천1백여명 가운데 5명의 어린이가 심장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정일스님은 "심장에 이상이 있는 어린이 5명은 경상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치료를 요할 경우 무료로 수술해 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로심장회는 '수안, 설봉스님 작품전시회'를 3월 18일부터 21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송석구 총장 27일취임식

총장 취임식

총장 취임식

총장 취임식

24시간 FAX상담 개통

자비의 전화(회장 정덕)는 지난 16일 전화상담에 이어 24시간 FAX상담실을 개통했다. 자비의 전화는 FAX상담실 개통과 함께 법률, 의료, 세무, 한방, 소비자등 각부문의 전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단순상담에서 정보제공의 영역으로까지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FAX (02)737-8802

96세계불교대회 한국서

세계불교도우의회(WFB) 및 세계불교청년회(WFBY)는 지난 8일 서울관광호텔에서 95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96년도에 열릴 제20차 세계불교도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결의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도문스님(대각사 주지)을 총재로 추대했다.

원정각 대중사 1주추모

진각종(통리원장 지광)은 오는 25일 고 원정각 대중사 열반 1주기를 맞아 서울 탑주심인당을 비롯 전국 각 심인당에서 추모봉사를 봉행한다.

'붓다의 메아리' 26일 공연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가 주최하고 서울지부 학생회장단협의회(회장 남기성)가 주관하는 제4회 '붓다의 메아리'가 오는 26일 승가대학 강당에서 열린다.

건전한 놀이문화의 보급과 정착을 위해 마련되는 이날 행사는 부친 원각정사, 화계사, 동대부고, 구룡사등의 중·고등학교생과 일반회원 3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BBS 본연 임무 충실"

한국불교기초학회(회장 변대용)는 지난 15일 '불교방송 신문창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불기원은 성명서를 통해 "만성적저에 시달리는 불교방송의 신문창간을 우려한다"고 지적하고 "불교방송이 전국 불자들의 열원이 깃든 공기임을 명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2일 '재가회의' 창립

2백여명 가입, 상임의장 서돈각박사

새 불자상 정립을 위한 재가 불자들의 모임인 한국불교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돈각)가 12일 오후 신라호텔 다이너스티룸에서 2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송일스님등 종단 대표스님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 김동은신부, 국회정각회장 권익현의원등 종교·정치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재가회의는 창립대회에서 공동의장으로 서돈각(대한불교진

흥원 이사장), 이기영(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김중서(한국교육개발원 이사장), 고은(현대불교신문 논설고문), 이윤근박사(금정학원 이사)등 5명을 추대하고 서돈각, 이기영, 고은씨를 각각 상임의장, 이사장,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관련기사 7면>

재가회의는 창립대회에 이어 문화 예술, 사회 복지, 경제 과학, 언론 출판, 교육 학술, 종교 신행, 정치 통일, 환경 윤리, 종교 교단, 국제 평화등 10개 분과로 나뉘어 분과 토의를 가졌다.

3·1절 76돌 행사 다채

'만해일' 모임·용성백일장·바자회등

올해로 76주년 맞은 3·1절 기념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만해일 만들기 모임'이 지난 21일 전통문화연구의 집요철원에서 발기인모임 및 현판식을 가진데 이어 대한불교청년회는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조계사 불교회관 1층에서 '3·1절 기념행사 및 제16회 만해백일장'을 개최한다. 또한 대구지부도 대구 불교신문단체와 대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용성 만해 백일장 및 사상 강연회'를 오전10시 대구 중앙공원에서 갖는다.

어린이집지 '동쪽나라'는 광복50주년 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3월1일 오전 10시 종로 파고다공원에서 '3·1만세 운동 재현 기념행사'와 '추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서울 소재 국민학교 어린이 5백여명을 대상으로 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삼창하는 3·1만세 운동을 재현한다. 또 부대사업으로 불산장려바자회도 전개된다.

(대불청:02-738-3386, 동쪽나라:02-263-1387)

인연달는 佛子님에게 불성을 전합니다

제가佛子 林泉白峯 수행작품

진품 연화도 8폭 병풍

티베트 스님 안거 수행작품

진품 만다라

■작품규격 및 특징

- 규격: 가로 49.6cm 세로 56cm
- 재질: 고급스기목·고급비단 3중 입체포구
- 규격과 작품규성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포교특가 ₩ 480,000

(클로버서비스) 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 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클로버서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회화공예연구원 (조계사 후문)

기획 제작 三田佛事

■문의처 : (02)732-6095 - 6

불교전통포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